

한정호의 클래식 슈퍼스타즈

라틴 정열에 유럽의 지성...85세 그녀의 피아노는 뜨겁다

한정호

공연평론가·에투알클래식 대표



2026년 새해 내한 클래식 음악가 가운데 명실공히 최고의 슈퍼스타는 1941년생, 팔순 중반의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다. 개관 10주년을 맞은 롯데콘서트홀 기획 시리즈로, 11월 21·22일 샤를 뒤투아가 지휘하는 KBS교향악단과 무대에 오른다. 1994년 가든 크레머와의 듀오, 2008·2010년 정명훈-서울시향 협연, 2007·2009·2019년 '베토 아르헤리치 페스티벌 인 서울' 참가에 이른 7년 만의 내한이자 통산 일곱 번째 방문이다.

호로비츠, 아르헤리치 데뷔앨범 듣고 편지
아르헤리치는 1979년 5월 암스테르담 콘서트 허바우 공연 때 극심한 외로움을 토로한 이후 솔로 리사이틀 중단을 결심하고, 1983년경부터 불문을 처럼 독주회를 거절해 왔다. 역대 내한 무대 역시 '맛보기식' 독주가 간간히 포함됐을 뿐, 언제나 실 내의 파트너나 협연자였다. 전 남편인 뒤투아와는 이혼 후에도 협연 관계를 이어 왔다. 2017년 뒤투아가 성추문과 권력 남용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에도 협연을 취소하지 않으며 사실상 지지를 표했다. 1936년생인 뒤투아의 연령을 감안하면, 이번 동반 내한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한 협주곡 레퍼토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뒤투아와는 보통 라벨과 슈만 협주곡을 해왔다. 장거리 이동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나이에 접어들면서 그의 무대는 늘 '캔슬 위험'이 따른다. 2007년 관동 공연 초청을 주관한 가시모토가 "일본의 여름은 덥다"는 아르헤리치의 말을 그대로 공연 취소 공지에 옮기기도 했다. 당시 아르헤리치를 대신해 각종 무대에 오른 연주자가 유자 왕이다. 1998년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초청해 온 베토 아르헤리치 페스티벌도 아르헤리치의 컨디션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쓴다. 베토를 찾는 즐거움이 페스티벌뿐 아니라 독특한 냄새가 올라오는 온천에 있다는 점을 아르헤리치 스스로 숨기지 않는다.

1941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아르헤리치는 1954년 대통령궁에 영재로 초청됐고,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 후안 페론의 지원으로 부모와 함께 오스트리아로 이주했다. 1957년 부조니·제네바 콩쿠르, 1965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잇달아 우승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1960년대 데뷔 이후 현재까지 그는 커리어 내내 '여성 피아니스트는 나약하다'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렸다. 훗날 절대음감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고백이 더해지며 신비성까지 증폭됐다. 폭발적인 에너지와 냉철한 이성이 공존하고 라틴의 정열과 중부 유럽의 지성이 한 몸에 깃든, 현존 유일의 거장 피아니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빈첸초 스카라무차에서 프리드리히 굴다에 이르는 스승의 계보만 살펴도 20세기 중반 피아노사의 윤곽이 그려진다.

1960년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고 데뷔 음반을 남겼다는 점에서도, 쇼팽 콩쿠르 우승을 등용문 삼아 '셀럽 경로'를 밟는 오늘날 성공 구조와는 다르다. 데뷔 음반 녹음 과정부터 일화가 많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마자 "전부 세 번 연주할 테니 수록은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진다. 녹음 사이 담배를 태우는 사진 속 카리스마 역시 강렬하다. 거장 아르투로 미켈란젤리가 학생 대기실에서 흘러나오던 '물의 회랑'을 듣고 "내 음반인가"라고 물었다는 일화의 주인공이 된 앨범 역시 아르헤리치의 데뷔반이었다. '20세기 위대한 피아노 거장' 블라디미르 호로비츠도 이 음반



1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 2 전 남편인 지휘자 샤를 뒤투아와 협연한 '쇼팽 피아노 협주곡' 앨범.

〈사진 위키미디어 커먼스, 워너 클래식스〉

아르헨티나 출신 마르타 아르헤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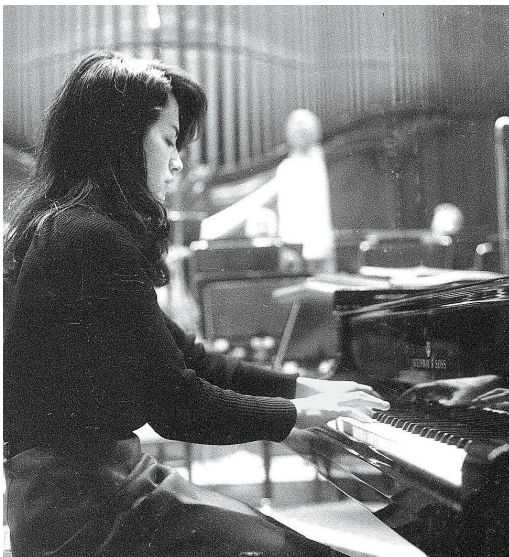
13세때 영재 발탁 대통령 지원받아

19세때 녹음한 데뷔 음반 '레전드'

부조니·제네바·쇼팽 콩쿠르도 석권

전 남편 뒤투아와 협연 관계 지속

연주 일정 적고 노출 극도로 꺼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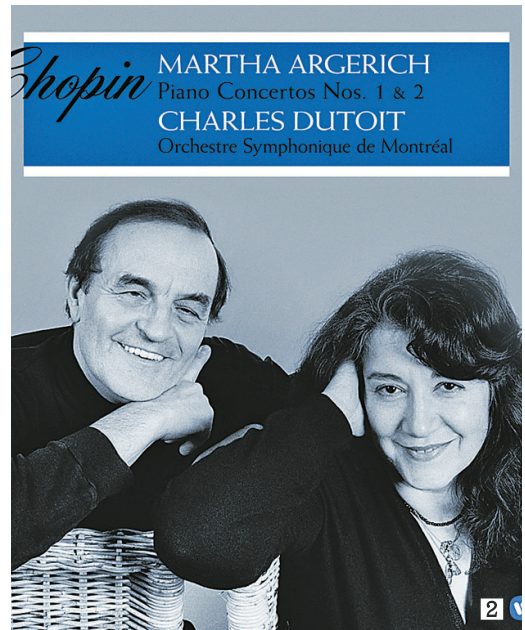


1965년 제7회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 참가한 마르타 아르헤리치. 〈사진 위키미디어 커먼스〉

을 듣고 자필 편지를 보냈다.

오히려 쇼팽 콩쿠르 우승 이후엔 약 3년간 연주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다. 피아니스트라는 삶 자체에 회의를 느끼며 "비서나 의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할 만큼 전혀 다른 인생을 상상하던 시기였다. 모국어인 스페인어를 비롯해 포르투갈어·프랑스어·영어·독일어·이탈리아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정도로 언어 감각이 뛰어나 비서직이 체질에 맞겠다고 여겼다는 것이다.

지휘자와의 관계에서도 호불호가 뚜렷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게오르크 솔티처럼 수직적 권위로 청년 연주자와의 협연을 관리하던 거장들과는 거리를 두었고, 클라우디오 아바도, 리카르도 샤이처럼 솔리스트의 프레이징 영역을 존중하는 지휘자들과 어울리며 명반들을 남겼다. 뒤투아는 남편과 동료 사이 어딘가에 놓인 인물이었다. 1970년 결혼한 두 사람은 음악적으로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



냈고, 뒤투아가 음악감독으로 재직하던 몬트리올 심포니 시절 아르헤리치는 정경화와 함께 핵심 협연자였다.

그런데 아심 넘치던 뒤투아가 권하는 여러 작품의 연주를 아르헤리치는 곧잘 거절했다. 1974년 일본 공연을 앞두고 두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 부부 싸움을 벌였고, 아르헤리치는 일본 땅을 밟자마자 유턴해 이혼했다. 이후 아르헤리치는 1974년 동료 피아니스트 스티븐 코바세비치와 재혼했다가 1979년 경 이혼했다. 아르헤리치는 세 남자와 결혼해 세 딸을 낳았고, 자녀는 모두 본인이 키웠다. 세 딸 모두 전문 음악가의 길을 택하지는 않았고, 각자의 예술 분야에서 협업하며 어머니를 지원한다.

아르헤리치의 이름이 본인 활동 외에 등장한 것은 1980년 쇼팽 콩쿠르였다.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이보 포고렐리치가 중도 탈락하자 "그래도 그는 천재다"라는 말을 남기고 심사위원직을 사임하는 전

대미문의 행동을 취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포고렐리치의 이름은 단숨에 세계 음악계에 각인됐다. 이후에도 2000년 부조니 콩쿠르 결승에 오르지 못한 입동혁에 대한 심사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EMI 신보 녹음을 주선하며 청년 음악가 보호 역할을 자임했다. 2015년 쇼팽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우승자 조성진을 격려하고 스케르초 2번 연주를 긍정 평가했다. 정명훈은 1978년 LA 필하모닉 부지휘자 시절 머리를 풀어헤친 아르헤리치를 처음 보고 놀랐지만, 두 사람의 우정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디어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탓에, 국내 언론사 문화사업부가 내한 공연을 주최하더라도 해당 언론과 대면 인터뷰가 이뤄지지 않는다. 2004년 베토 아르헤리치 페스티벌을 열간 객석 기자로 취재한 필자 역시, 인터뷰를 위해 숙소로 오라고 해 기대에 부풀었지만 막판 변심했다는 소식에 낙담한 적이 있다. 국내에서 아르헤리치와 대면 인터뷰를 성사시킨 이는 중앙일보 김정호 기자가 유일하다. 김 기자는 2008년 정명훈-서울시향 협연을 마친 아르헤리치의 동선을 집요하게 쫓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그린룸의 흡연실까지 접근했다. 당시 필자는 공연 기획사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평소 안면이 있던 경비원에게 인사를 건네며 김 기자와 안으로 들어갔다. 지금은 경비 체계가 철저해져 불가능한 일이다. 2부 공연으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공간에서, 줄담배를 피우며 혼자 모니터를 보던 아르헤리치에게 김 기자는 독주회를 안하는 이유를 물었다. 아르헤리치는 손가락으로 발바닥을 만져 가며 "연습만 하고 연주는 하지 않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답했다.

2015년 쇼팽 콩쿠르서 조성진 격려하기도
팔순 중반의 아르헤리치가 놀라운 이유는, 과거 그 나이대의 연주자들에게서 흔히 목격되던 기술적 퇴행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거주지인 제네바를 거점으로 최소한의 연주 일정만을 소화하되 공연의 품질은 최상으로 고정하려는 집중과 선택의 결과다. 무대에서 정면을 응시하지 않는 버릇 또한, 자신의 음악적 구상이 박수 등 외부 요소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기 보호의 제스처로 읽힌다.

예술적 실패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루가노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실내악 축제가 문을 닫았다. 젊은 연주자 발굴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기획자가 밀어 올린 인물이 무대를 채우기도 했고, 노련한 음악가들의 실내악이 리허설 부족으로 무너졌음에도 '우정의 무대' 식으로 미화한 장면도 종종 목격됐다.

하지만 여느 연주자라면 용인되지 않았을 행동이 아르헤리치라면 허용되곤 한다. 우리가 그녀를 허용한 이유는 분명하다. 그녀를 속박하는 순간, 음악이 먼저 쪼그라들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크리스티안 지메르만, 안드라스 쉬프, 루돌프 부흐빈더가 이 시대 각각의 사조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 불릴 수 있지만, 아르헤리치는 모든 사조를 아우른다. 음악과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의 문화적 예외로 기록될 피아니스트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한정호 런던 시티대 대학원 문화정책 매니저
트 석사. 발레리나 박세은, 축구인 박지성 등 예술 체육계 명사의 에이전시와 문화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에투알클래식 대표를 맡고 있다. 현재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